



오늘의 말씀 - 월 (출 7-1-13)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
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
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
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
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
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본문 이해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

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 때 모세는 80,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가 지팡이로 뱀이 되는 이적을 행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적용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또 모세를 위해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처럼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예언자처럼 모세의 말을 대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 왕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바로가 말을 잘 들을 것이라 해도 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6, 10). 자기들의 말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잘 알 수 있었고, 또 그러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때 그들의 나이가 각각 80, 83세였습니다. 쉽고 안전한 삶을 구할 그 나이에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자신들 만을 생각했다면,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기적인 생각에 끌렸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욕하며 저주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보거나, 완악한 바로를 보거나, 그 어디를 보아도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기심

과, 이스라엘 자손의 어리석음과, 바로의 완악함을 똑
똑히 보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과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
과 불순종의 삶의 결과를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기억
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
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
서.

(내일 말씀: 출 7:14-25)